

수업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대구시교육청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행복 수업 나눔의 날' 개최



대구초등·특수 수석교사회는 지난 28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제2회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행복 수업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초등교원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석교사와 함께 협력적 배움과 성장에 있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위한 수업 공유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과목별 수업 사례 및 학생·교사 활동 결과물을 강의실

과 복도에 전시해 교사들에게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또 7개 분야에서 '수업 철학과 노하우', '수업하기', '수업 보기'에 대해 수업 시연, 실습·토론 등이 펼쳐졌다.

분과 운영은 전체 수석교사들이 역할을 나누어 연수생이 다양한 참여 방식으로 직접 실습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세부적인 분과별 운영은 '질문과

이야기가 있는 국어 수업', '버추(Virtue) 프로젝트를 활용한 인성교육', '배움의 공동체 철학', '인성 중심 협력수업', 'PBL' 등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일상의 수다처럼 편안하게 수업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수업 친구'의 개념으로 진행됐다. 서로의 수업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일

선의 교사들이 수업 친구 문화에 동참하는 기회가 됐다.

대구초등·특수 수석교사회(회장, 유지호 김경화)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현장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연구 활동의 자발적 지원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수업방식을 공유하고자 작년부터 '행복 수업 나눔의 날 워크숍'을 열어 교육기부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초등교사는 "급변하는 사회에 다양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가지 철학과 방법들을 적용해보며 다양한 수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석교사들과 수업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풀이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소통과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시정하 초등교육과장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미래의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석교사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실 일선 교사들의 감사가 되어주고 있고 앞으로도 일선 교사들의 수업 철학 확립과 수업 친구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수석교사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2017 신설예정학교 교명 선정

지리적 특성, 어감 등 고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오는 2017년 3월 신설예정인 가정서제1초등학교 등 4교와 2017년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라 교명 변경을 신청한 대구자연과학고의 교명을 선정했다.

새로운 교명은 시민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교명 중 각 분야 전문가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난 28일 최종 결정됐다.

다사읍 서제지역 새 개별 사업으로 신설되는 가정서제1초등학교는 '대구서동초등학교'로 동일 부지 내에 신설예정인 가정서제유치원은 초등 교명과의 연계성을 고려 '대구서동유치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가정 테크노4유치원(달성군 유기면, 테크노폴리스 내)도 유기초등학교부지 내에 신설 예정으로 초등 교명과의 연계성 및 지명을 고려 '대구유기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이들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 가정 국가산단1초등학교는 '대구서현초등학교'로 선정됐다.

대구자연과학고는 오는 2017년 3월 첨단 농업 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신청한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됐다. 선정 교명은 10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리적 특성, 어감,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교명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신설 학교 교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 주력

'2016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 성료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지난 28일 김천실업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2016년 김천시 일자리 박람회'가 구인·구직자를 비롯한 학생과 시민 등 1천여 명이 몰리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상북도도와 김천시, 고용노동부 미지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북 경영자총협에서 주관한 이날 박람회는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라는 슬로건으로 31개의 구인 기업체와 해외 취업상담, 이력서작성, 취업준비강사 등을 실시하는 부대행사를 포함

전체 66개의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산학관이 함께한 이번 박람회는 현장채용관, 취업지원관, 진로상담관, 소문채용관 등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구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는 인사 실무팀이 참여하여 입사설명회를 가지면서 공공기관에 뜻을 둔 많은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

었다.

한편 박보생 김천시장을 대신해 박람회장에 참석한 이영두 김천시 주민생활기획관은 "우리는 기업의 인력 수요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 협약'과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일반인 취업박람회와는 차별화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31개 구인 기업체에서 30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기업체별 입사설명회 마무리되면 높은 채용률이 예상된다.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다

대구시, '정체성 찾기 범시민 운동' 본격 서동

대구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국제보상운동, 2.28민주운동 등 2대 시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민 회복과 민주화에 앞장선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지역민의 미래발전으로 승화시키고자 '대구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

대구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은 올해 대구시민의 날을 전후해 오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대구시내 일원에서 대구정체성 포럼 등 시민 정신 확산 행사와 도심 RPG 등 문화예술 행사의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먼저 시민 정신 확산 행사는 ▲대구정체성 포럼 ▲인문학 시민강좌 ▲지역학 학술세미나 ▲대구 알기 가족 골든벨 등이 개최된다.

대구정체성 포럼은 대구의 뿌리와

정신에 대한 보편성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와 시민 참여행사로 이루어지며 인문학 시민강좌는 '국제보상운동' 및 '2.28민주운동', '대구역사문화와 미래'를 주제로 한 지방교수의 초청강의로 개최된다.

지역학 학술세미나에서는 대구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고 대구 알기 가족 골든벨에서는 가족 단위의 20여 팀이 참여해 대구의 역사·문화·인물 등에 대한 열띤 퀴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문화예술 행사는 ▲대구정체성 찾기 도심 RPG ▲대구시민 강기대회 ▲장터지킴이 공연 ▲대구정신 트레일 투어 ▲대구 근현대 100년 사진전 등 가족·친구·인물 등과 함께 참여 가능한 체험형 행사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지역의 역사현장을 찾아 대구의 문화와 정체성 관련 미션을 수행하는 '대구정체성 찾기 도심 RPG'를 비롯해 오는 10월 8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5천여 명의 시민이 두류공원 일대를 함께 거니는 '대구시민 강기대회', 국제보상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기적소리' 공연이 연이어 진행된다.

그밖에 2대 시민 정신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와 인물을 둘러보는 '트레일 투어'와 지역 근현대 100년간의 희곡사건을 전시하는 '사진전' 등도 개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정체성 찾기 범시민운동은 또래로 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구시민 주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대구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국제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10월 10일 까지 사립유치원 92개 원을 6개 조로 나누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속지해 위법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쉽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6년 사립유치원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청탁금지법과 함께 안내한다.

9월 28일 교육에 참석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처음 시행되는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명한 청렴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대가를 상실한 관리하여 할 보험자로서 흡연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보험대가가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동보건문제 1위로 지칭

OECD주요국 담배가격·흡연률 비교

담배가격	흡연률
대한민국 2,500원	23.3%
영국 10,000원	13.3%
스웨덴 8,200원	11.8%
일본 10,000원	11.8%
독일 8,400원	12.2%
프랑스 9,400원	16.4%
미국 9,400원	16.4%
한국 2,500원	23.3%
아일랜드 14,375원	11.3%

각국담배 경고문구 비교

한국: RAISON

호주: SMOKING CAUSES MOUTH CANCER

유엔연합: TONGUE CANCER

우루과이: FUMANDO SE PUERE MORIR